

# ‘전북의 맥, 전북 사람’ 출판기념회

전북특별자치도, 14명 어르신 빛나는 삶 기록한 자서전 출간... 빛나는 도서관 사업 일환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6일 왕의 지밀 훈민정음홀에서 2023년 빛나는 도서관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도내 어르신 14명의 인생 흔적을 오롯하게 담아낸 ‘전북의 맥, 전북 사람’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빛나는 도서관 사업은 도내 어르신들의 다양한 삶의 지혜를 기록으로 남겨 미래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으로 축적하기 위해 추진됐다.

출판기념회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장을 비롯한 참여 어르신 및 가족, 집필진 등 100여명이 참석해 축하의 자리를 빛냈으며, 모티브와상들의 현악 3중주 축하공연이 이뤄졌다.

또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자서전 전달식 및 기념사진 촬영, 그리고 어르신들 및 집필진 등이 자서전에 대한 소감을 전하는 등 다채로운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6일 왕의지밀 훈민정음홀에서 2023년 빛나는 도서관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도내 어르신 14명의 이야기를 담아낸 ‘전북의 맥, 전북 사람’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되는 자서전 ‘전북의 맥, 전북 사람’은 지역에서 자신의 삶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60세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각 시군 문화원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김전주 한지장 오성근님 △군산 꽃계장 명인 김철호님 △익산 석공예 명장 권오달님 △정읍 목가구제장 박영식님 △남원 남원칼 명인 박관두님 △김제 팥화장 유삼영님 △완주 굿감 장인 안홍순님 △진안 웅기장 이현배님 △무주 낙화놀이 전수자 박찬훈님 △장수 곱돌장인 박동식님 △임실 향토사학자 故 최홍춘님 △순창 장류 장인 김순욱님 △고창 자연환경해설사 김동식님 △부안 곱소염전 장인 김

동근님이 선정됐다.

도내 어르신들의 드라마틱하고 다양한 삶을 이야기로 엮어낸 이번 첫번째 자서전은 어르신들의 생애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와 역사를 담아 낸 것으로 의미가 매우 깊다.

자서전에 참여한 유삼영(법명 도원스님)씨는 “평범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오면서 습득한 지혜와 경험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책으로 출판되어 너무나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집필진으로 참여한 한성천씨는 “집지 않은

## “설 연휴, 태권도 매력 흠뻑 빠져요”

태권도원 설 연휴 기간 11·12일 운영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은 2024년 설날 연휴 태권도원 운영 일정을 알리며 고향을 찾은 온 가족들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한다.

먼저 이번 설 연휴 기간, 태권도원은 11일(일)과 12일(월)에 운영한다.

11일과 12일 태권도원에서는 2024년 태권도원 상설공연 ‘태권도사’를 11시와 오후 2시에 만날 수 있다. 25분간 펼쳐지는 공연에서는 고난도 격파와 창작 품새, 호신술 등 태권도를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로 남녀노소 태권도원 방문객들에게 태권도 매력을 선물한다. 상설공연 후에는 공연단원들과 기념촬영 및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가할 수 있다.

국립태권도박물관에서는 태권도 아카이브 기



전망대에서 바라본 백운산 풍경.

획전시 ‘흑백의 여로’와 기증 유물·자료를 만날 수 있는 ‘기증자 공간’ 등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태권도원 전망대에서는 겨울 날씨와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전망대 정장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태권도원 방문자들이 느낄 수 있는 것으로 그 자체가 압권이다. 이외에도 AR·VR 장비를 착용하고 태권도를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도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김제시립도서관은 오는 26일까지 상반기 문화강좌 ‘도서관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서관 아카데미는 도서관의 정체성에 맞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편성해 책과 시민이 함께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상반기 운영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6월까지이며, 강좌별로 10회에서 15회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독서·인문·문화·어린이·자격증 관련 5개 분야이며, 총 21개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도서관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세대를 포용하는 공간구성을 할 것이며, 김제시민에게 책을 통한 인문학적 소양을 채워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063-540-4135)로 하면 된다. /김제=박노태 기자

##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수여

전북특별자치도, 이상호·신애자·곽종민 신규 3건 인정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도청 회의실에서 신규 지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대상으로 보유자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새롭게 도 무형문화재로 인정된 판소리장단(고법) 이상호, 침선장(침선) 신애자, 모필장(장액붓) 곽종민 보유자와 가족, 동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보유자들은 “오랜 시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해당 종목에 대한 애정과, 우리 전통의 맥을 잇고 있다는 의지 하나로 이 길을 걸어왔고, 무엇보다도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판소리장단 이상호 보유자는 故 이성근 전북특별자치도 판소리장단 보유자의 아들로 ‘전국 팔마고수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명고로 손꼽힌다. 현재는 전북도립국악원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침선장 신애자 보유자는 1983년 故 박순례 선생의 공방에 입문해 침선일을 배우기 시작, 전통복식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조복, 제복, 궁중제복, 사대부 복식 등을 사사했다.

모필장(장액붓) 보유자는 조부 곽관순, 아버지 곽준필, 형남인 故 곽종찬 전북특별자치도 모필장 보유자의 뒤를 이어 3대째 전통붓을 만들어 기업을 잇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총 87명(국13, 도 74)으로, 인구대비 전국



최다의 무형문화재 숫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의 고장 전북의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일찍부터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는 단순히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지정 이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전승활동 지원, 교육을 위한 워크숍, 홍보활동을 위한 한마당 축제 및 국내외 행사 참가지원, 보유자 건강 관리를 위한 위로금 지원 사업 등 종합관리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인 전승과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앞으로도 도 차원의 보호와 지원책을 다각도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소중한 우리 전통문화유산을 더욱 풍요롭고 균형있게 발전시켜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자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문화누리카드 사용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월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6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도내 6세 이상(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전북지역에서는 1,900여 개의 온·오프라인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도내 138,777명에게 전년 대비 18% 증액된 1인 연간 13만 원을 지급, 전체 대상자 154,149명 대비 90% 규모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전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충전되지만, 지원금 전액 미사용자, 복지시설 발급자 등은 자동 재충전되지 않는다. /장은성 기자

## 한국전통문화전당, 공모전 통해 전주 디저트 5종 선정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전주 디저트 공모전인 ‘전주한입’의 최종 심사를 거쳐 전주만의 특색 있는 이미지와 스토리를 담은 디저트 5종을 최종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 관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공모전에는 모두 13개 업체가 참가했다.

선정된 5개 업체는 △1등 MZ쿠키세트(달리는농부) △2등 말랑폰트 썰리설기(향담시루), 전주 쌀푸딩(로컬웍스) △3등 치아미타 샌드위

치(데이브과자점), 감말랭 양갱(풍년제과) 등으로 전주 특산물을 활용하고, 지역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잘 녹여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1등을 차지한 M(맛)Z(즐거움)쿠키세트는 전주 대표 특산물인 복숭아 잼을 첨가한 전통성당 쿠키, 전주10미(昧) 미나리를 넣은 이싱게 쿠키와 콩나물을 넣어 만든 콩나물쿠키로 구성, 관광 상품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